

베드로후서 1 장 1-11 절

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앎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4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6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7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8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9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대략 65-68 년 사이에 적은 편지입니다. 1 장 14 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입니다.
- 베드로 후서는 주로 신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려는 목적으로 적혔습니다.
- 1, 2 절과 같이 대부분의 서신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부분은 생소할 수 인사말입니다.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으로 높이는 인사말을 보면, 삼위 일체 교리가 초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3, 4 절 그리고 5 절에 나오는 '덕' 이라는 말은 모든 좋은 성품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덕' 은 말이 아닌 행동, 즉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 3 절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 4 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때로는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지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지면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5 절부터 7 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덕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도간의 우애, 사랑과 같은 덕목들은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나타내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더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말씀들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 (빌립보 2:12), 절제와 훈련을 하는 운동 선수의 비유 (고린도전서 9:24-27),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말씀 (디모데전서 4:7)
- 8 절과 9 절은 비슷한 이야기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강조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후에 꾸준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 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훈련을 게을리 하면 처음 가진 믿음과 생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서 잊혀져 가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 하면, 진실로 믿어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시 가졌던 죄 용서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 10 절과 11 절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수도 있다는 경고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옳지 못합니다. 구원의 진실성은 8 절과 연결하여 보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된 훈련에 관한 내용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 5 절 이후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앙 성장은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 절에 나오는 '넘어지지 않을 것' 라는 표현이 신앙적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